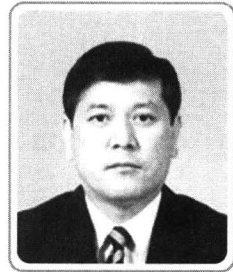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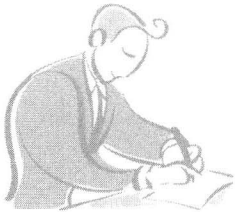


배려하는 이는 은혜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 윤 호
포철기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본 행인이 “정말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갑니까?”라고 묻자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 보다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질문을 한 분은 너무나 부끄러웠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배려’임을 깨닫게 되었다. 즉, 배려는 나를 넘어 서서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즐겁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지요.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위한 배려(행복의 조건) 너와 나를 위한 배려(즐거움의 조건) 모두를 위한 배려(성공의 조건)가 있어야 함을 우린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공자께서는 “나의 삶을 잘 살아가며, 남과 조화를 이루면 결국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곧 예의범절, 법질서, 제도 같은 것도 알고 보면 ‘서로를 위한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배려란 곧 ‘남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존중해줄 줄 아는 마음씨’이며, 나누고 베푸는 생활,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배려하고, 왜 배려해야 하며,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스스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높고 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세상은 항상 자신이 평가하는 것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생기지요. 하지만 불평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겨 투쟁하는 것은 스스로를 외로움으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행복한 삶은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와 나에 대한 배려지요.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여유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을 돌아보게 해주지요.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그릇부터 비워야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게 마련이며, 착한 사람에게는 그 선함을 배우고, 악한 사람에게는 그의 잘못을

보고 반성할 수 있다”고 하지요. 곧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고와 행동을 받아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선·후배/동료들로부터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두에 대한 배려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지요. 곧 세상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모두를 보듬어 안는 마음, 모두를 위한 배려가 가정과 사회에 행복을 가져다 주며 사람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과 상대방의 관점을 넘어 전체의 관점에서 아우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자선 사업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배려가 되며, 베풀면서 얻는 즐거움, 행복은 무엇보다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물이 마른 뒤에야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병을 앓아 보아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실직자가 되어 보아야 직업의 귀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지요.

즉, 행복은 모든 것이 다 갖추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 후에 느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질도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서 발췌한 어느 독자의 글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자신 안에 변함없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느 누가 불행하다 또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가슴 안에 살아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해지는 것이며, 행복하다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25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말했던 링컨 대통령도 외모는 정말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탁월한 유머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처리하기 힘든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아이고 이놈의 팔자! 먹고 살기 정말 힘드네! 라며 우선 한숨부터 내쉬는 A 씨. 까짓것 내가 죽기 살기로 하면 못하겠어! 이번 기회에 내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야! 라며 도전정신에 불타고 항상 신나게 행동하는 B 씨.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잘 생긴 남자, 예쁜 여자도 인상 찌푸리고 살면 매력 제로 아닌가요?

궁극적으로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공존의 절대적 원칙입니다”

인류는 살아 남으려고 무리를 지어 생활하여 왔습니다. 이점이 곧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에서 배려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원칙이지요. 옛 성현인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공자 같은 성인들이 제각각 다른 표현으로 인간의 도리를 강조했지만(예수-사랑, 석가모니-자비, 공자-어짐) 공동의 원칙은 바로 배려가 아닌지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왜 배려를 해야 되며, 무엇을 배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직장이나 회사나 가정에

서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플에버(리서치전문기관)가 지난 06. 6. 1 에 직장인 19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가장 존경 받는 상사의 유형으로 배려와 이해심이 많은 ‘인격 있는 상사(36.9%)’를 가장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더십이 있는 상사(23.8%), 부하직원을 믿어 주는 상사(13.2%),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는 상사(12.1%), 업무능력이 뛰어난 상사(11.3%) 순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두 다 필요한 덕목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다수가 모여 생활하는 조직생활에서 말 한마디에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고, 세상에 오직 혼자만 버려진 듯한 고독을 느낄 때가 가끔 있지요. 쉽게 말해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도 개개인의 성격, 근무여건, 생활패턴 등에 따라 받아 들이는 정도가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현재의 세계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관계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Individual Care’가 필요합니다.

대개의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맛있는 것을 사 주고서 그 먹는 모습을 볼 때 행복

을 느낀다고 하지요.

어린아이의 좋아하는 모습은 곧 아버지의 기쁨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자녀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직장 동료나 우정을 나누는 친구간에도 서로 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없다면 생활 자체가 많이 각박하고 삭막해지지 않을까요?

부자는 자신이 가지는 것을 베푸는 자이고, 가난한 자는 얻으려고만 하는 자라 합니다. 금전, 부동산, 주식 등 가진 것을 인생의 잣대로 생각한다면 살아가는 순간 순간이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여러분이 속한 협회가 지속 성장해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도 보장 받을 수 있고, 사회공헌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 속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늘 행복하고 남을 배려하며 존경 받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예의 범절이나 법 질서, 제도 등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에서 출발됨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보건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